

특별취재

군산시, 국민안전처 평가  
재난대응 훈련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는 국민안전처 평가 2016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재난시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설정해 실전과 동일한 실제 훈련 및 도상훈련으로 실시됐다.

군산시는 다양한 국민체감형 교육을 실시한 점이 크게 작용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수저류조 및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시설 개량과 함께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상반기 화재 131건 발생

군산에서 올해 상반기에 총 131건 화재가 발생 3억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에 따르면 2016년도 상반기 화재통계분석 결과 화재발생 건수는 총 131건으로 인명피해 5건, 재산피해 3억9900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화재건수는 18.6% 감소하고, 인명피해는 37.5%감소(8명→6명) 재산피해는 10.5%(3억6100만원→8억9900만원) 증가했다.

화재발생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가 77건으로 58.8%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6.8%(22건), 기계적 요인 12.2%(16건) 순이다.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38.9%(51건), 주거시설 및 기타 22.9%(30건), 차량 11.5%(15건),임야 3.0%(4건)순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교통안전 활동 추진평가  
도내 15개 경찰서 중 1위 차지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 추진 평가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 홍보 활동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이다.

군산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경보 발령과 기상 노면 상태에 따른 교통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 노후신호기 7개소 교체, 횡단보도 60개소 간이중앙분리대 11개소 설치 등 홍보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통사고 유발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5.7%(5명)가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황등면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반찬 전달

익산 황등면 새마을부녀회(이하 부녀회, 회장 이기심)는 6월 목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50여명의 회원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영농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말반찬을 직접 만들어 지역 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 58세대에 나눴다.

이기심 부녀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의 취지를 살려 숨겨진 자원을 찾아 재활용하고, 그 판매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며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의회 민주 자주성 상실

## 의장단 선거 중앙정치 개입으로 의원간 다툼·갈등 불려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제7대 군산시의회가 향후 어떤 방법으로 갈등과 불신을 봉합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부터 치러진 군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원내 제1당인 국민의당은 의회 내 모든 의석을 차지하려 했으나 부의장 선거에서 소수당에 패배했다.

이는 중앙정치권의 기초의회 의장단 내정 등으로 의회 자주성과 민주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개입은 당과 갈등을 부추겨 의원간 다툼은 물론 고성, 감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제7대 군산시의회 의장단 구성에도 협치와 봉군정치, 협의의 정치는 없었으며 3선·4선의 중진의원들마저 중앙정치권력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다수당에 의해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던 진희완 전 의장(4선·국민의당)은 지난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 20년 동안 의장단 선거 때마다 의원 간 분열, 계파 간 갈등과 모략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에도 다수 당의 독단적인 판을 쳤다"며 우려를 표했다.

3선의 의원으로 부의장에 출마했으나 정경발표 후 전격 사퇴한 더 민주당 소속 강성욱 의원은 뼈 아픈 충고의 말을 남기고 부의장 후보를 사퇴했다.

강 의원은 "군산은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누군가는 배려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자기것을 내려 놓아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며 "제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것에 대해 배려하고 힘없는 것에 배려하고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건설위원장 선거에 도전했던 서동완 의원 역시 다수 당 의원들에 대해 쓰디쓴 일침을 날리고 사퇴했다.

서 의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정경발표를 통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보면서 다소 기대감이 있었으나 역시 아직은 군산시의회가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부분은 성급하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어떠한 세력들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다음에는 의원들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선거, 시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의회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 의정활동 본격

제7대 군산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5일 제 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제7회 의회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박정희 의장과 김경구 부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이날 운영위원장에 김우민 의원(아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에 배형원 의원(마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에 나종성 의원(바 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경제건설위원장 후보에 나종성 의원과 서동완 의원이 등록을 했으나, 서 의원이 정결발표 후 사퇴하면서 나 의원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투표 결과 나종성 의원은 13표로 과반수를 넘어 경건위원장에 선출됐다.

행정복지위원장 투표에서는 배형원 의원 14표를 신영자 의원이 10표를 얻어 배형원 의원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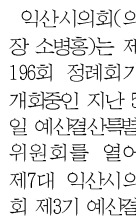
운영위원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단독 출마한 김우민 의원이 찬성 19표를 얻어 선출됐다.

또 김난영(더민주 비례대표), 신영자(더민주 비례대표), 방경미(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각각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로써 군산시의회는 운영위원 7명, 행정복지위원 12명, 경제건설위원 11명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구성을 완료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의회 예결위원장 박철원의원 선출



익산시의회의(의장 소병홍)는 제 196회 정례회가 개최중인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7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박철원 의원(사진)(오산, 모현, 송하)이 선출했다.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5일 선임된 김우수, 김정수, 김충영, 박철원, 성신용, 최종오, 황호열 의

원과 함께 7명의 위원이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 하게 된다.

예결위 활동기간 중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6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7년 예산안 심사 등 예산 및 결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철원 위원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 재정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이지만 익산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 나운3동 주민센터 낙뢰피해 민원업무 마비

6일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 자체 전력설비가 낙뢰피해를 입어 하루 종일 민원업무가 마비됐다.

나운3동주민센터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50분에 낙뢰현상으로 인해 나운3동 인근 지역에 순간전압이 발생했다.

특히 주민센터 3층의 전력설비 부품이 낙뢰로 파손됐으나 오래된 부품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날 민원업

무가 완전중단 됐다.

주민센터 측은 플래카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을 인접 주민센터로 안내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훼손된 부품을 부서에서 긴급하게 조달 중에 있는 만큼 7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농협 군산지부 오늘 '이동상담실' 개최

농협 군산지부는 오늘 '농협이동상담실'을 개최한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 및 결혼이주여성의 무료개방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건강,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에서 이동해 강의 및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농협은 19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1754개 시군 지역을 순회하며 12만 9283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운영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16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서는 피해구조 접수를 원하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시간이 준비됐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국적취득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개명관련 현장상담수도 병행 실시한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주택용지 분양완료

익산시는 삼기면·낭산면 일원에 조성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인 주택용지를 100% 분양완료했다.

조성당시 거주마을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분양은 1만1,768㎡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일반분양 1만5,731㎡ 등 총 2만7,499㎡는 7월5일 계약을 마지막 으로 분양완료 됐다.

또한 분양가는 특별분양은 3.3㎡에 29만원, 일반분양은 3.3㎡에 52만원으로 시는 35억원의 분양매출금을 회수했다.

계약자들은 교통이 좋고 기반시설 구축과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아 전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분양을 추진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8월 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군산시는 2016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를 오는 8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종전의 사업소세로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연면적(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수평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m당 20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330㎡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휴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다채

익산시, 9일까지 진행

세계유산도시 익산, 세계도 미래도

# 백제

##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2016. 7. 8(금) 17:00  
익산 미륵사지 일원

이리향예술품류, KBS 어린이합창단 등  
남진, 김연자, 박일준, 김정연 외 4인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7월4일~ 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8일 대한민국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그날의 기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7일에는 세계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주관으로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세계유산 팸투어가 열린다.

세계유산 등재 당일인 8일 오후 2시 원광대박물관에서는 익산시민들이 개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대여해 전시하는 '익산시민 소장 유물 특별전'의 개막식이 개최된다. 총 220점의 유물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계속된다.

같은 날 미륵사지에서는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이 진행된다.

오후3시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오후5시부터 식전행사로 무형문화재 길놀이와 kbs어린이 합창단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본 행사는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기쁨을 도민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며, 초청가수 남진, 김연자, 박일준 등 검증된 가수들의 흥겨운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9일에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유산을 비롯한 익산의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왕궁리 유적에서 미륵사지까지 시민들이 직접 도보로 이동하면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다.

지난 4일 원광대학교에서는 이웃에 국내외 석화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5일에는 세계유산의 관리주체로서 공주, 부여, 익산 3개 지역 주민들이 1주년을 기념해 세계유산을 교차 방문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는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이룬 성과로 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계유산도시로서 역사적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인류의 빛나는 유산으로써 보존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